

2017년 5월 19일, 성산읍 온평리 고유을 씨 댁, 송정희 조사.
고유을(여, 1924년생, 성산읍 온평리)

- 줄거리: 도깨비가 남편이 집에 없으면 나타나서 아내를 괴롭히는 통에 아내는 결국 그 집에서 못 살고 나왔다고 한다.

[제보자] 도체비 잘 놀래노나네. 도체비 구신 무신 집인 도체빌 방제허젠 허민 물대가리 헤다그네. 무신, 올렛담에 묻었져. 무시거 헷저. 그때덜은 막 골아낫어게. 옛날엔 또 도체비 구신을 하영 모셔나고. 집집마다 잇인딘 이 신산이러렌이. 방상이, 형 제간에 혼 집이 시민 큰집이 시만. 다. 그 방상엔 다 해사 허곡. 경 허고 옛날엔 그추룩 살아낫주. 그추룩 사는디. 도체비가이, 여자에 막 좋아라허곡.

[조사자] 으응.

[제보자] 그 도체비 구신 모신 디가. 완전히 사름 행세를 헌덴. 사름 행세를 헤그네. 온평리 사름이 신산리 시집을 갖는다. 그디 막, 도체비가 성덕인 집이 시집을 갖어. 시집을 가난. 그 도체비엔 헌 구신이. 여자광만 막 좋아란 헌덴. 남자 엇이민 그 여자광 강 훈디 늑젠헹 살질 못허게 헌덴. 실진 아니라도이. 마음, 정신으로 경 헌 거라이.

꿈 보듯이 그추룩 헹 헤불민. 아니 서방 초즈냑이 어디 가베영 엇인 땐 누웠이자 그 도체비가 오랑 훈디 늑젠헹 허곡 허나네. 못 살 사름은 그 집이 태왕 살 사름은. 그걸 위행 그디서 살곡 못 살 사름은 시집 못 살양 나오라비여.

시집 못 살안에. 나오라벳인디. 밤이사 술 주는 소리가 스르릉 스르릉 물 헤여그네 주전지로 영 질어가민게. 스르릉 스르릉 소리 나지 안 헤여? 어떻사 그레 소릴 닮게 내어 오는지. 경 내운데. 현실은 아닌디. 그추룩 허나네 기냥 못살안 나오란 시집 안 살양 나오라 불멍 헷인디.

- 핵심어 : 도체비, 여자, 집, 온평리, 사람 행세, 도깨비, 신산리